

#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특위’ 첫발…총리와 ‘지원 보따리’ 논의

지역 국회의원 전원 참여 특위 구성  
오늘 김민석 총리와 첫 공식회의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가 구성을 완료하고 14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첫 공식 회의를 갖는다. 정부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 발표에 앞서 지역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입법 과제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위와 ‘행정통합 입법 추진 지원단’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는 광주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한다.

특위를 이끌 공동 위원장에는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특위는 행정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법안 마련과 정부와의 디테일한 협상을 주도할 ‘입법 추진 지원단’은 한재호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아 국회 행정안전위, 교육위, 재정경제기획위 소속 위원들과 호흡을 맞춘다.

양부남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정부 측 실무자들과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할 실무 담당 의원으로 광주에서는 안도걸 의원, 전남에서는 김문수 의원을 추천해 배치했다”며 “특위 전체가 큰 틀의 방향을 잡으면 이들 실무진이 입법 추진단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의 첫 공식 일정은 14일 오전 8시 서울 여의

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간담회다.

이날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약속한 ‘재정·산업 분야의 전폭적 지원’을 구체화하는 실무 협의 성격이 짙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국제 이양과 대규모 기업도시 조성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시사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양부남·김원이 공동위원장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가 준비 중인 ‘통합 광주·전남 지원 계획안’을 공유받고 막판 조율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의원들은 통합 지자체의 성공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통합 지역 우선 배치, 국립의대 신설,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 등이 정부 지원안에 확실히 담길 것을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위원장은 “14일 총리와의 1차 회의에 이어 15일 오전 7시30분에도 2차 회의가 잡혀있다”며 “정부 발표 직전까지 지역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꼼꼼히 점검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 결정 방식을 둘러싼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부와 양 시·도 단체장은 물리적 시간 부족과 소모적 갈등 방지를 이유로 ‘시·도 의회 의결’을 통한 속도전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쟁점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3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구청장협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5개 구청 “행정통합 ‘원팀’ … 기초자치단체 권한 강화 필수”

### ‘자치분권형 통합’ 공동선언문 발표

광주지역 행정의 최일선인 5개 자치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광주시와 ‘원팀’을 선언했다.

이들은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이 대폭 강화되는 ‘자치분권형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강기정 시장과 임택(동구)·김이강(서구)·김병내(남구)·문인(북구)·박병규(광산구) 구청장이 참석한 이날 자리는 통합 논의를 행정 기관 주도로 서 주민 생활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선언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심화하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거대 성장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의 성패는 사·도민의 공감에 달려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은 주민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청장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합 청사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5개 구청장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광역 정부는 미래 산업과 광역 교통망 등 거시적 전략 사무를, 기초 정부는 교육·복지·도시 관리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사무를 전담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특히 재정 분권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교부세·조정교부금 비율 법정화,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지방세 배분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 경찰 제 확대와 조직·인사 자율성 보장 등도 주문했다.

구청장협의회는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주민 삶과 직결된 기초 자치가 더 강해지는 ‘분권형 통합’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역설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전남도의회 ‘행정통합’ 공식 입장 표명 유보

### 균형발전 위한 구조적 정책 필요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3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간 간담회에서 통합의 배경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직접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도의회는 애초 이날 발표 예정이었던 행정통합 관련 입장 표명을 미루고 금명간 후속 간담회를 개최한 후 의원들간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합에 대응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도의원들은 이날 김영록 지사에게 통합으로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전경선(민주·목포5) 도의원은 “전남지역 소형 업체들은 전남 업체로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저도 광주 업체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전남에 입점해 있다”며 “그런데 통합이 되면 광주 업체들이 경쟁이 더 나을 것이며 지역 경제도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명확하게 지역 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지역 경제

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최선국(민주·목포1) 도의원은 “광주의 물자·인적 인프라가 전남보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도민들은 통합이 오히려 균형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전남도는 다핵 분산형 거점 균형 발전과 균형 발전 기금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통합시에 균형 발전 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좀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규현(민주·담양2) 도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서 또다른 지역 소멸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에 대해 “농촌 지역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첨단 산업 배치가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전남이 영농형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산업, AI 농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농촌이 도시보다도 더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근본적인 농촌 구조를 개편을 하고 농촌기본 소득 확대와 햇빛·바람·연료 등을 통해 더 많은 연구가 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의회 ‘행정통합 대응 TF’ 본격 가동

### 의원 정수 불균형 해소 등 특례 조항 신설 요구키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발을 견어붙였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의원 정수로 전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의원 정수대로 단순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주 23명 대 전남 61명’이라는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전남지역 의원들이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돼,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대등하거나 앞서는 광주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F는 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의 의원 정수 불균형을 해소

하고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는 안도 나왔다.

정부와 사·도가 준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도 예고했다. TF는 향후 출범할 ‘광주·전남특별시의회’를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자 통합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10명이 참여하는 이변 TF는 통합 지방정부가 정식 출범할 때까지 가동된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지역 총판 모집 안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국내 최초 렌탈공급 등록 업체

1억원 백상채권보험  
증권번호:120251388541  
장래인 인증:제2024-089

DB

주요 공급 대상

▶ 초·중·고·대학교, 각계 정부기관, 군부대, 종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기업, 삼성, LG, SK 등 기타  
▶ 교실, 강의실,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

사업의 강점

▶ 국내 최초 렌탈 및 정부보달 방식으로 무한 수익창출  
▶ 교육기관 및 행정 공공기관, 군부대, 종교단체, 대기업  
▶ 시장 안전성, 지속적 성장 특별 초기 참여분께 우선권 제공

창업 기회대상

▶ 다년간 행정 공공기관 및 교육관련 유사 직종 퇴직자  
▶ 교육 행정기관, 군부대근무 종교단체 지역 기반 경력자  
▶ 조직관리 지역총판, 새로운 창업 희망자 우대

엠케이솔루션(주)

연락처 : 010-2366-8843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6년 1월 13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150,000,000원 중 금90,000,000원 완을 해소하여 자본금 6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서 발행주식총수 15,000주 중 9,000주를 회향하는 주주로부터 1좌당 금10,000원에 매수 유상소각하여 총 발행주식 15,000주를 6,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일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또한, 위 자본감소에 따른 주주권을 가진 사람은 본 공고 게제일 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 주권을 본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4일  
주식회사 맑음전력  
200111-0718474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416, 상2동 3층 303호  
(삼각동, 삼각골드플러스)  
사내이사 김병 정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좌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5년 12월 31일 총사원의 결의로 하여 자본금의 총액 금1,150,000,000원 중 287,500,000원을 감자하여 자본의 총액을 금 862,500,000원까지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출자의 파수 총 115,000좌 중 28,750좌를 본 회사가 회향하는 사원들로부터 1좌당 금10,000원으로 매수하여 유상소각하고 발행출자와 총수 115,000좌를 86,250좌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회사의 좌권을 가지고 계신 사원은 위 기간 내에 회사에 좌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4일  
우림건설 유한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율전면 서부로 1959  
대표이사 박종 일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안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